

고린도 후서 12:1-10 "은혜로다"

육체의 가시(고통)로 인해 기도한 바울이 깨달은 가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건(문제)이나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해석에 따라 그 의미(평가)와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다.(7)

이전 번역본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게' 라고 번역한다. 즉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7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한다.

바울은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교육받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에서 행세를 하려면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도 능통했던 사람이다. 종교적 열심도 탁월했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고후11:22-27). 여기서 바울은 한 마디로 누구보다도 탁월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영적 체험과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을(고전12:-12;) 교훈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한 것 같다. 그러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치명적인 가시를 주셨다. 그 이유는 이런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그가 교만하고 교만해서 넘어질까 염려하여 그 안전장치로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 (9)

이르시기를- 최종적 판결문에 쓰이는 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다. 선언적이며 종결적인 단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의 기도와 전혀 다른 응답이다. 이것을 가리켜 '매우 친절한 거절' 이라고 해석한다.

은혜-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 중에 '은혜' 라는 말은 그동안 사도로 부름 받음과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 거하는 것, 인간의 고난이 제거된 상태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는 인간에게 고난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를 은혜라는 말로 매듭짓는다. 오히려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은혜의 통로다.(10)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 말은 지금 가시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은 큰 어려움이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못한다.

가시가 그를 강하게 했다. 바울이 '가시' 에게 '사탄의 사자' 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웬만한 어려움에는 끄덕도 없이 견딜 수 있는 예방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는 사탄이 준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좀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데 그 가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27:27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 어디선가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할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있었던 유일한 가시는 유다도 베드로와 빌라도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마지막 아우와 조롱이다. 마지막 유혹이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오늘 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위대한 사건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